

## 학교 적응유연성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 전문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박수영<sup>1</sup>, 이창환<sup>2\*</sup>

<sup>1</sup>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sup>2</sup>서강대학교 심리학과

## Dangerous and protective factors of school resilience : focusing on the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Suyoung Park<sup>1</sup> and Chang H. Lee<sup>2\*</sup>

<sup>1</sup>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gang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교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 경기 지역의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573명과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5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적응유연성과 위험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위험요인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유연성은 낮게 나타났다. 둘째, 위험요인이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전문계고 학생들에게는 교사차별, 비행유대, 반사회성이 영향을 미쳤고, 인문계고 학생들에게는 교사차별, 비행유대, 우울이 영향을 미쳤다. 셋째, 학교 적응유연성과 보호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보호요인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유연성은 높게 나타났다. 넷째, 보호요인이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전문계고 학생들에게는 교사지지, 학교의 민주적 분위기, 책임감, 가족응집력, 자아존중감, 합리적 부양태도로 나타났고, 인문계고 학생들에게는 교사지지, 민주적 학교 분위기, 책임감, 가족 응집력이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학교계열과 학교 적응유연성 수준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반사회성, 우울, 비행유대, 자아존중감의 변인에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Abstract** In this study, I collected materials through the survey whose object is 573 students of technical high schools and 512 students of academic high schools in Seoul and Kyunggi areas, for examining dangerous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which influence on school resilience in technical high schools. The studying results are as followed. First, as the result of analyzing correlation between school resilience and dangerous factor, the higher dangerous factor was, the lower school resilience was. Second, as the result verifying the effects of dangerous factor on school resilience, discrimination of teacher, delinquency bond and anti-sociality made an effect on students in technical high schools and discrimination of teacher, delinquency bond and depression made an effect on students in academic high schools. Third, as the result analyzing correlation between school resilience and protective factor, the higher protective factor was, the higher school resilience was. Forth, as the result verifying the effects of protective factor on school resilience, support of teacher, democratic atmosphere of school, sense of responsibility, family cohesion, self-worth, rational supporting attitude made an effort on students in technical high schools and support of teacher, democratic atmosphere of school, sense of responsibility and family cohesion made an effect on students in academic high schools. Fifth, as the result analyzing the difference between dangerous factor and protective factor according to grade of school and standard of school resilience, there was an interaction in variables of anti-sociality, depression, delinquency bond and self-worth.

**Key Words** : School resilience, Technical high school, Dangerous factor, Protective factor

---

이 연구는 1차자의 석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하여 지도교수가 작성하였음. 본 연구는 2010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일부 지원에 의한 연구임 (201010049).

\*교신저자 : 이창환(chlechoan@sogang.ac.kr)

접수일 10년 12월 06일

수정일 11년 02월 08일

게재확정일 11년 02월 10일

## 1. 서론

전문계 고등학교는 90년대 중반까지 기능 인력 양성을 통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저출산에 의한 학생 수 감소,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진학 기피 현상, 전문계 고교생의 취업률 저조, 산업 구조 변화에 뒤쳐진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인문교육 중시, 학벌 중심 사회구조의 배경 속에서 가중되어 왔다.

교육통계연보[12]에 의하면 90년대 중반 거의 절반에 가까웠던 전문계고의 학생 비율은 25%로 줄었다. 이는 2002년 이후 꾸준히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일반계고와는 대조적인 현상으로,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전문계고가 외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2009년 2월 중학교 졸업생 중 81.63%가 일반계고에 진학하였고, 18.23%만이 전문계고에 진학하였다. 더불어 향후 몇 년 안에 학력인구수가 감소하게 될 경우 전문계고부터 학생 수가 더욱 줄 것이 예상되어 한국의 전문계고는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문계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보다는 성적, 가정형편 등과 같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진학을 결정한 경우가 많다. 이런 학생들은 적성과 소질에 맞지 않아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는 등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낳고, 심각하게는 학업 중단에까지 이르게 된다. 실제로 일반계 고등학교와 비교할 때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자는 4배의 수준이고, 전문계 고등학교 전체 학업 중단자 중 51.7%가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12].

또한 전문계고의 내부 문제를 살펴보면 결손가정이 22%, 월수입 99만원 미만인 20.1%이었고[3], 가족 내 대화가 없는 경우가 20.7%(류은정, 2007), 권위적·방임적인 가정이 44.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서도 성적인 나쁜 경우가 31.0%,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23.9%, 비행 친구와의 관계가 있는 경우가 30.3%로 나타나 교내환경 역시 취약하다[11].

이처럼 전문계고 학생 외적으로는 교육 정책적 문제, 학력저하 현상, 실업교육의 기피, 노동직 천시 풍조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낙오자로서의 낙인 현상이 초래되는 상황이고, 내적으로는 빈곤, 결손, 교사와의 갈등, 학교만족도 저하 및 부적응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문계 고등학생들이 모두 발달적 문제를 보이며 부정응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계고 학생들 중 약 28%의 학생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학과에 대해 만족하며, 수업·교우관계·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다시 말해 이러한 고위험의 내·외적 요인들은 학생들에게 위기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한다. 개인적·환경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높은 회복능력을 가지는 학생들은 고위험의 상황에서도 높은 적응 수준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외적 환경들로 인해 학생의 발달에 부정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위험요인(risk factor)이라고 하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발현되는 이들의 유능감(competence)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이라고 한다. 또한 위기를 경험한 개인이 이를 회복하여 긍정적 적응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능력을 적응유연성(resilience)이라고 한다.

적응유연성 개념은 학생의 부정적인 발달에 대한 초점에서 벗어나 위기 속에서도 그 역경을 오히려 성공적으로 다루어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빈곤청소년[6,10], 결손가정 청소년[9], 가출 및 시설보호 청소년[11] 등을 대상으로 한 적응유연성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및 보호요인을 알아보는 한편, 인문계 고등학생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학교 계열(전문계/인문계)과 학교 적응유연성 상·하 집단의 차이에 따라 어떠한 위험 및 보호요인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인문계에만 한정하여 실시되었으며 서로를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탐색적 연구의 일환으로 해당 변인에 대한 국내 고등학교의 실상을 알아볼 수 있는 기초 토대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 2. 연구 가설

위험요인과 학교 적응유연성의 관계에 대하여 양국선(2001)은 충동/공격성향, 우울/포기성향, 가족 역기능, 잦은 생활사건의 요인들이 학교 적응유연성과 높은 부적상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7]. 또한 중퇴경험 야간실업고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충동/공격성향 이었고, 인문계고 학생들에게는 우울/포기성향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해정(2002)은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우울성향이 학교 적응유연성에 가장 큰 부정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의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부정적 관계 및 학교 주변환경에 대한 위험요소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의 대상과 위험요인의 척도에 따라서 학교 적응유연성과 위험요인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위험요인들과 학교 적응유연성의 관계 및 어떠한 위험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 위험요인과 학교 적응유연성은 부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7]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보호요인 중 민주적 학교 분위기, 교사의 지지, 책임감, 효능감, 계획성 등의 순으로 학교 적응유연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고, 이 중 교사의 지지와 민주적 학교 분위기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가장 큰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의 연구에서는 책임감, 유능감, 대인관계 기술, 교사의 지지, 친구의 지지, 민주적 학교분위기, 교과 수업 외 활동참여가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보호요인들은 학교 적응유연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고, 사회환경적 요인인 교사의 지지와 민주적 학교 분위기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내적, 가족적, 사회환경적 보호요인이 학교 적응유연성과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연구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2 : 보호요인과 학교 적응유연성은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학교 적응유연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위험요인이 더 적고, 더 많은 보호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7]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 적응유연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개인의 충동/공격 성향과 우울/포기 성향, 생활의 스트레스 사건이 적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학교를 더 민주적이라 느끼고,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책임감과 계획성을 더 지닌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적응유연성의 상/하 수준에 따라 어떠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적응 유연성이 낮은 집단에의 효과적 개입을 위한 토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 대

상(학교계열)에 따라 학교 적응유연성 수준에 따른 위험 및 보호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문계고와 전문계고로 집단을 나누어 그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전문계고와 인문계고 집단의 성격적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 제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 학교 적응유연성 수준과 학교계열에 따라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 경기 지역의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1095부 중, 응답에 누락이 많거나 중복 응답을 한 경우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한 총 1085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전문계고의 응답자 수는 573명으로 성별은 남학생 435명(75.9%), 여학생 115명(20.1%)이었다. 일반계고의 응답자 수는 512명으로 성별은 남학생 285명(55.7%), 여학생 212명(41.4%)이었다.

본 연구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학교 적응유연성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학교계열과 학교 적응유연성 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자료 분석을 위하여 상관분석, 변량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위험요인과 학교 적응유연성의 관계

**가설 1 : 위험요인과 학교 적응유연성은 부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의 검증을 위하여 반사회성, 우울, 충동/공격성, 가정불화, 가정경제, 비행유대, 교사차별, 비행허용환경변인과 학교 적응유연성 척도간의 상관계수(r)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하위척도들의 경우 .57에서 .79사이이며 전체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2였다.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학교계열별 학교 적응유연성과 위험요인의 상관관계

	반사회성	우울	충동/공격성	가정불화	가정경제	비행유대	교사차별	비행허용	위험요인 전체
전문계	학교 흥미	-.26**	-.14**	-.17**	-.16**	-.11*	-.26**	-.44**	-.19**
	성취태도	-.18**	-.11**	-.09**	-.16**	-.14**	-.17**	-.27**	-.07**
	규범준수	-.27**	-.14**	-.17**	-.21**	-.08**	-.46**	-.32**	-.28**
	유연성 전체	-.32**	-.17**	-.20**	-.23**	-.13**	-.43**	-.46**	-.27**
인문계	학교 흥미	-.09*	-.30**	-.25**	-.19**	-.16**	-.28**	-.37**	-.18**
	성취태도	-.04**	-.19**	-.09**	-.12**	-.16**	-.18**	-.24**	-.01**
	규범준수	-.17**	-.10**	-.19**	-.16**	-.03**	-.38**	-.40**	-.20**
	유연성 전체	-.16**	-.26**	-.25**	-.22**	-.14**	-.40**	-.48**	-.2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적응유연성 전체와 8개 위험요인 전체는 전문계( $r=-.45$ ,  $p<.01$ )와 인문계( $r=-.43$ ,  $p<.01$ ) 모두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전문계고 집단은 위험요인 중 반사회성, 우울, 충동/공격성, 가정불화, 비행유대, 교사차별이 학교 적응유연성의 모든 하위변인들과 유의미한 부적상관( $r=-.32$ ,  $p<.01$ ;  $r=-.17$ ,  $p<.01$ ;  $r=-.20$ ,  $p<.01$ ;  $r=-.23$ ,  $p<.01$ ;  $r=-.43$ ,  $p<.01$ ;  $r=-.46$ ,  $p<.01$ )을 보였다. 이와는 달리 인문계 집단은 우울, 충동/공격성, 가정불화, 비행유대, 교사차별이 학교 적응유연성의 모든 하위변인들과 유의미한 부적상관( $r=-.26$ ,  $p<.01$ ;  $r=-.25$ ,  $p<.01$ ;  $r=-.22$ ,  $p<.01$ ;  $r=-.40$ ,  $p<.01$ ;  $r=-.48$ ,  $p<.01$ )을 보였다.

위험요인 중 교사차별이 전문계( $r=-.46$ ,  $p<.01$ )와 인문계( $r=-.48$ ,  $p<.01$ )에서 학교 적응유연성 전체와 가장 상관이 높았고, 가정경제가 전문계( $r=-.13$ ,  $p<.01$ )와 인문계( $r=-.14$ ,  $p<.01$ )에서 학교 적응유연성 전체와 가장 상관이 낮았다. 특징적인 것은 반사회성이 전문계( $r=-.32$ ,  $p<.01$ )와 인문계( $r=-.16$ ,  $p<.01$ )에서, 우울이 전문계( $r=-.17$ ,  $p<.01$ )와 인문계( $r=-.26$ ,  $p<.01$ )에서 학교 적응유연성 전체와 상관의 크기에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는 점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 적응유연성과 위험요인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학교 적응유연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8개의 위험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변인들이 학교 적응유연성을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는지 그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학교 적응유연성 전체에 대한 위험요인의 단계적 회귀분석

	단계	독립변인	R	R <sup>2</sup>	ΔR	F	B	β	t
전문계	1	교사차별	.451	.203	.203	141.515	-.191	-.451	-11.896**
	2	교사차별 비행유대	.522	.272	.068	103.290	-.141 -.115	-.334 -.287	-8.404** -7.213**
	3	교사차별 비행유대 반사회성	.540	.292	.020	75.857	-.127 -.102 -.063	-.299 -.255 -.152	-7.450** -6.351** -3.944**
	1	교사차별	.478	.228	.228	148.725	-.196	-.478	-12.195**
인문계	2	교사차별 비행유대	.536	.287	.059	101.140	-.154 -.127	-.376 -.263	-9.196** -6.447**
	3	교사차별 비행유대 우울	.551	.304	.016	72.786	-.144 -.120 -.046	-.351 -.249 -.132	-8.546** -6.122** -3.428**

\* $p<.05$ , \*\* $p<.01$ , \*\*\* $p<.001$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 적응유연성 전체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계의 경우 1단계에서는 교사차별, 2단계에서는 비행유대, 3단계에서는 반사회성이 각각 단계적으로 추가되면서 학교 적응유연성을 설명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인이 되었다. 이 변인들이 학교 적응유연성을 설명해 주는 전체 설명력( $R^2$ )은 29.2%였으며, 독립변인들이 각각 단계별로 투입되면서 학교 적응유연성에 대한 설명력은 교사차별 20.3%, 비행유대 6.8%, 반사회성 2.0%가 각각 증가하였다. 또한 교사차별, 비행유대, 반사회성은 학교 적응유연성에 부적 영향( $B=-.127$ ,  $\beta=-.299$ ,  $t=-7.450$ ,  $p<.01$ ;  $B=-.102$ ,  $\beta=-.255$ ,  $t=-6.351$ ,  $p<.01$ ;  $B=-.063$ ,  $\beta=-.152$ ,  $t=-3.944$ ,  $p<.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의 경우 1단계에서는 교사차별, 2단계에서는 비행유대, 3단계에서는 우울이 각각 단계적으로 추가되면서 학교 적응유연성을 설명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인이 되었다. 이 변인들이 학교 적응유연성을 설명해 주는 전체 설명력( $R^2$ )은 30.4%였으며, 독립변인들이 각각 단계별로 투입되면서 학교 적응유연성에 대한 설명력은 교사차별 22.8%, 비행유대 5.9%, 우울 1.6%가 각각 증가하였다. 또한 교사차별, 비행유대, 우울은 학교 적응유연성에 부적 영향( $B=-.144$ ,  $\beta=-.351$ ,  $t=-8.546$ ,  $p<.01$ ;  $B=-.120$ ,  $\beta=-.249$ ,  $t=-6.122$ ,  $p<.01$ ;  $B=-.046$ ,  $\beta=-.132$ ,  $t=-3.428$ ,  $p<.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와 같이 전문계와 인문계 모두 학교 적응유연성 전체에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는 변인은 교사차별이고 두 번째로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이 비행유대라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전문계의 경우 반사회성이, 인문계의 경우 우울이 학교 적응유연성 전체에 설명력을 가

지는 변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7]의 연구에서 야간 실업계고 학생들에게는 충동/공격 성향이, 인문계고 학생들에게는 우울/포기 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전문계고와 인문계고 집단의 개인내적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험요인은 학교 적응유연성과 부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1은 지지되었다.

## 2. 보호요인과 학교 적응유연성의 관계

### 가설 2 : 보호요인과 학교 적응유연성은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의 검증을 위해 자아존중감, 유능감, 책임감, 부모의 애착, 가족응집력, 합리적 부양태도, 교사의 지지, 민주적 학교분위기, 친구의 지지 변인과 학교 적응유연성 척도간의 상관관계(r)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아존중감의 Cronbach  $\alpha$ 는 .83, 유능감, 책임감, 부모의 애착, 가족응집력, 합리적 부양태도, 교사의 지지, 친구의 지지의 Cronbach  $\alpha$ 는 각각 .85, .79, .90, .83, .85, .89, .91 이었다. 민주적 학교분위기의 Cronbach  $\alpha$ 는 .66였다. 상관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학교계열별 학교 적응유연성과 보호요인의 상관관계

	자아 존중 감	유능 감	책임 감	부모 애착	가족 응집 력	부양 태도	교사 지지	학교 분위 기	친구 지지	보호 요인 전체
학교 흥미	.10*	.16**	.24**	.31**	.30**	.30**	.56**	.53**	.11**	.46**
성취 태도	.08	.24**	.26**	.24**	.19**	.15**	.25**	.17**	.07	.30**
전 문 계 규범 준수	-.04	.06	.23**	.18**	.20**	.13**	.18**	.24**	-.01	.20**
유연 성 전체	.04	.18**	.31**	.32**	.30**	.26**	.43**	.42**	.06	.41**
학교 흥미	.21**	.18**	.26**	.30**	.34**	.20**	.49**	.49**	.14**	.46**
성취 태도	.13**	.26**	.30**	.20**	.18**	.15**	.29**	.17**	.03	.32**
인 문 계 규범 준수	.07	.06	.19**	.17**	.23**	.06	.21**	.16**	.08	.22**
유연 성 전체	.18**	.20**	.32**	.30**	.34**	.17**	.44**	.37**	.12**	.44**

\* $p<.05$ , \*\* $p<.01$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적응유연성 전체와 보호요인 전체는 전문계( $r=.41$ ,  $p<.01$ )와 인문계( $r=.44$ ,

$p<.01$ )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전문계고의 경우 9개의 보호요인 중 유능감, 책임감, 부모애착, 가족 응집력, 합리적 부양태도, 교사의 지지, 민주적 학교분위기와 학교 적응유연성 전체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 $r=.18$ ,  $p<.01$ ;  $r=.31$ ,  $p<.01$ ;  $r=.32$ ,  $p<.01$ ;  $r=.30$ ,  $p<.01$ ;  $r=.26$ ,  $p<.01$ ;  $r=.43$ ,  $p<.01$ ;  $r=.42$ ,  $p<.01$ )을 보였으나, 자아존중감과 친구의 지지는 상관이 없었다. 한편, 인문계고의 경우 9개의 보호요인이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 $r=.18$ ,  $p<.01$ ;  $r=.20$ ,  $p<.01$ ;  $r=.32$ ,  $p<.01$ ;  $r=.30$ ,  $p<.01$ ;  $r=.34$ ,  $p<.01$ ;  $r=.17$ ,  $p<.01$ ;  $r=.44$ ,  $p<.01$ ;  $r=.37$ ,  $p<.01$ ;  $r=.12$ ,  $p<.01$ )을 나타내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 적응유연성과 보호요인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학교 적응유연성을 종속 변인으로 하고 9개의 보호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변인들이 학교 적응유연성을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는지 그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다중공선성은 0.1이상으로 최소한의 가정을 만족하였다.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에 대한 보호요인의 단계적 회귀분석

종 속	단계	독립변인	R	R <sup>2</sup>	$\Delta R^2$	F	B	$\beta$	t
전 문 계 학 교 적 응 유 연 성 전 체	1	교사지지	.431	.185	.185	125.132	.173	.431	11.186**
	2	교사지지					.124	.309	7.701**
	2	학교분위기	.512	.262	.077	97.491	.262	.303	7.556**
	3	교사지지					.101	.251	6.212**
	3	학교분위기					.262	.303	7.766**
	3	책임감	.549	.302	.040	78.965	.097	.208	5.585**
	4	교사지지					.090	.224	5.555**
	4	학교분위기					.253	.292	7.565**
	4	책임감					.082	.177	4.706**
	4	가족응집력	.566	.321	.019	64.622	.056	.147	3.921**
	5	교사지지					.096	.238	5.933**
	5	학교분위기					.251	.289	7.574**
인 문 계 학 교 적 응 유 연 성 전 체	1	교사지지	.437	.191	.191	119.058	.164	.437	10.911**
	2	교사지지					.131	.348	8.436**
	2	학교분위기	.497	.247	.056	82.717	.197	.253	6.142**
	3	교사지지					.105	.280	6.609**
	3	학교분위기					.201	.259	6.428**
	3	책임감	.535	.286	.039	67.080	.089	.208	5.216**
	4	교사지지					.090	.239	5.604**
	4	학교분위기					.189	.243	6.119**
	4	책임감					.078	.182	4.587**
	4	가족응집력	.558	.311	.025	56.635	.064	.170	4.284**

\* $p<.05$ , \*\* $p<.01$ , \*\*\* $p<.001$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 적응유연성 전체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계의 경우 1단계에서는 교사의 지지, 2단계에서는 민주적 학교분위기, 3단계에서는 책임감, 4단계에서는 가족 응집력, 5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 6단계에서는 합리적 부양태도가 각각 단계적으로 추가되면서 학교 적응유연성을 설명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인이 되었다. 이 변인들이 학교 적응유연성을 설명해 주는 전체 설명력( $R^2$ )은 34.1%였으며, 독립변인들이 각각 단계별로 투입되면서 학교 적응유연성에 대한 설명력은 교사지지 18.5%, 민주적 학교분위기 7.7%, 책임감 4.0%, 가족 응집력 1.9%, 자아존중감 1.5%, 합리적 부양태도 0.5%가 각각 증가하였다. 또한 교사의 지지, 민주적 학교분위기, 책임감, 가족 응집력, 합리적 부양태도는 학교 적응유연성에 정적영향( $B=.089$ ,  $\beta=.221$ ,  $t=5.412$ ,  $p<.01$ ;  $B=.251$ ,  $\beta=.290$ ,  $t=7.606$ ,  $p<.01$ ;  $B=.100$ ,  $\beta=.213$ ,  $t=5.546$ ,  $p<.01$ ;  $B=.052$ ,  $\beta=.135$ ,  $t=3.416$ ,  $p<.01$ ;  $B=.037$ ,  $\beta=.081$ ,  $t=2.001$ ,  $p<.05$ )을, 자아존중감은 부적영향( $B=-.081$ ,  $\beta=-.147$ ,  $t=-3.852$ ,  $p<.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의 경우 1단계에서는 교사의 지지, 2단계에서는 민주적 학교분위기, 3단계에서는 책임감, 4단계에서는 가족 응집력이 각각 단계적으로 추가되면서 학교 적응유연성을 설명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인이 되었다. 이 변인들이 학교 적응유연성을 설명해 주는 전체 설명력( $R^2$ )은 31.1%였으며, 독립변인들이 각각 단계별로 투입되면서 학교 적응유연성에 대한 설명력은 교사의 지지 19.1%, 민주적 학교분위기 5.6%, 책임감 3.9%, 가족 응집력 2.5%가 각각 증가하였다. 또한 교사의 지지, 민주적 학교분위기, 책임감, 가족 응집력은 정적영향( $B=.90$ ,  $\beta=.239$ ,  $t=5.604$ ,  $p<.01$ ;  $B=.189$ ,  $\beta=.243$ ,  $t=6.119$ ,  $p<.01$ ;  $B=.078$ ,  $\beta=.182$ ,  $t=4.587$ ,  $p<.01$ ;  $B=.064$ ,  $\beta=.170$ ,  $t=4.284$ ,  $p<.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와 같이 학교 적응유연성 전체에 대하여 전문계와 인문계 모두 교사의 지지가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는 변인이었고, 학교분위기, 책임감, 가족응집력 순으로 설명력이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보였다. 한편, 전문계고의 경우 인문계고와는 달리 자아존중감과 합리적 부양태도가 학교 적응유연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자신과 또래 친구들의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자아존중감 변인이 비행 유대가 높은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교 적응유연성에 오히려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전문계고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합리적 부양태도는 [13]의 연구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부모에게 감찰, 훈육, 문제해결 방법, 강화의 기법을 교육한 결과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와 관련하여 전문계 고등학생에게는 부모의 합리적인 지도 및 양육 방식이 인문계 고등학생들에 비해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가지 제한된 결과로 상관관계에서는 유의미한 변인들(예: 부모애착, 유능감)인데 회귀분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들이 있었다. 이는 이들변인들이 먼저 투입된 변인(예: 가족 응집력)과 유사한 변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초등 단계에서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유사한 변인들을 선정한 것이기에 중요한 제한점으로 남을 수 있겠다.

따라서 “보호요인과 학교 적응유연성은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2는 지지되었다.

### 3. 학교계열과 학교 적응유연성 수준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차이

#### 가설 3 : 학교 적응유연성 수준과 학교계열에 따라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계고와 인문계고를 통합하여 학교 적응유연성 상·하위 25%를 절단점으로 나누어 두 집단을 구성하고, 학교 적응유연성 상·하 집단을 다시 전문계고와 인문계고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 집단들에 따라 8개의 위험요인과 9개의 보호요인에 대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험요인에는 반사회성과 우울과 비행유대가, 보호요인에는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학교계열과 학교적응유연성 수준에 따른 반사회성의 차이

[표 5] 학교계열과 학교적응유연성 집단별 반사회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N= 1,085)

학교 계열	학교 적응유연성	평균	표준편차	n
전문계	상	1.67	.75	123
	하	2.50	.96	156
인문계	상	1.91	.83	109
	하	2.28	.92	120

먼저 학교계열(전문계/인문계)과 학교 적응유연성(상/하) 집단에 따른 반사회성의 평균을 살펴보면, 전문계고

의 학교 적응유연성 하집단의 반사회성 평균이 2.50으로 가장 높고, 전문계고의 학교 적응유연성 상집단의 반사회성 평균이 1.67로 가장 낮았다.

[표 6] 학교계열과 학교 적응유연성 수준에 따른 반사회성의 이원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MS (평균자승화)	F
학교계열	.005	1	.005	.006
학교적응유연성 상/하	44.642	1	44.642	58.14**
학교계열 & 학교적응유연성 상/하	6.44	1	6.44	8.39**
	386.97	504	.768	
	2727.250	508		

\*\*p<.01

학교계열(전문계/인문계) 간에는 반사회성 수준의 차이가 없었고, 학교 적응유연성(상/하) 집단 간에는 반사회성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_{(1,504)}=58.14$ ,  $MSe=.768$ ,  $p=.01$ ). 또한 학교계열과 학교 적응유연성 집단에 따른 반사회성 수준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_{(1,504)}=8.39$ ,  $MSe=.768$ ,  $p=.01$ ). 이 결과를 볼 때 전문계 고등학생이면서 학교 적응유연성 하집단의 반사회성이 가장 높고, 학교 적응유연성 상집단의 반사회성이 가장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교 적응유연성에 따라 전문계고 학생들의 반사회성의 차이가 인문계고 학생들의 차이보다 유의미하게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계고 학생들이 적응유연성의 차이에 따라 반사회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 2) 학교계열과 학교적응유연성 수준에 따른 우울의 차이

[표 7] 학교계열과 학교적응유연성 집단별 우울의 평균과 표준편차

학교계열	학교 적응유연성	평균	표준편차	n
전문계	상	2.74	.91	123
	하	3.16	.86	156
인문계	상	2.63	1.00	110
	하	3.40	.89	120

학교계열(전문계/인문계)과 학교 적응유연성(상/하) 집단에 따른 우울의 평균을 살펴보면, 인문계고 학교 적응유연성 하집단의 우울 평균이 3.40으로 가장 높았고, 인

문계고 상집단의 우울 평균이 2.63으로 가장 낮았다.

[표 8] 학교계열과 학교 적응유연성 수준에 따른 우울의 이원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MS (평균자승화)	F
학교계열	.51	1	.51	.61
학교적응유연성 상/하	44.54	1	44.54	53.59**
학교계열 & 학교적응유연성 상/하	3.88	1	3.88	4.67*
	419.69	505	.831	
	5047.50	509		

\*\*p<.01, \*p<.05

학교계열(전문계/인문계)에 따른 우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학교 적응유연성(상/하) 집단과 학교계열과 학교 적응유연성 집단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_{(1,505)}=44.54$ ,  $MSe=.831$ ,  $p=.01$ ;  $F_{(1,505)}=4.67$ ,  $MSe=.831$ ,  $p=.05$ ). 이 결과를 볼 때 인문계 고등학생이면서 학교 적응유연성 수준이 낮은 집단의 우울이 가장 높고, 인문계 고등학생이면서 학교 적응유연성 수준이 높은 집단의 우울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 적응유연성에 따라 인문계고 학생들의 우울의 차이가 전문계고 학생들의 차이보다 유의미하게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문계고 학생들이 적응유연성에 따라 정서적 변인인 우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 3) 학교계열과 학교적응유연성 수준에 따른 비행유대의 차이

[표 9] 학교계열과 학교적응유연성 집단별 비행유대의 평균과 표준편차 (N= 1,085)

학교계열	학교 적응유연성	평균	표준편차	n
전문계	상	1.55	.76	124
	하	2.67	1.01	156
인문계	상	1.31	.55	111
	하	2.07	.85	119

학교계열(전문계/인문계)과 학교 적응유연성(상/하) 집단에 따른 비행유대의 평균을 살펴보면, 전문계고 학교 적응유연성 하집단의 비행유대 평균이 2.67로 가장 높고,

인문계 학교 적응유연성 상집단의 비행유대 평균이 1.31로 가장 낮았다.

[표 10] 학교계열과 학교 적응유연성 수준에 따른 비행유대의 이원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MS (평균자승화)	F
학교계열	21.71	1	21.71	31.59**
학교적응유연성 상/하	110.12	1	110.12	160.27**
학교계열 & 학교적응 유연성 상/하	4.20	1	4.20	6.11*
	347.69	506	.69	
	2457.25	510		

\*\*p<.01, \*p<.05

학교계열(전문계/인문계)과 학교 적응유연성(상/하) 집단 간에서 모두 비행유대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F_{(1,506)}=31.59$ ,  $MS_e=.69$ ,  $p=.01$ ;  $F_{(1,506)}=160.27$ ,  $MS_e=.69$ ,  $p=.01$ ). 또한 학교계열과 학교 적응유연성 집단에 따른 비행유대 수준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_{(1,506)}=6.11$ ,  $MS_e=.69$ ,  $p=.05$ ). 이 결과를 볼 때 전문계고 학교 적응유연성 하집단의 비행유대가 가장 높고, 인문계고 학교 적응유연성 상집단의 비행유대가 가장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문계고 학생들의 비행유대가 인문계고 학생들보다 높고, 학교 적응유연성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응 유연성에 따라 전문계고 학생들이 인문계고 학생들보다 비행유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 4) 학교계열과 학교적응유연성 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표 11] 학교계열과 학교적응유연성 집단별 자아존중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N= 1,085)

학교계열	학교 적응 유연성	평균	표준편차	n
전문계	상	3.35	.73	124
	하	3.25	.73	156
인문계	상	3.74	.66	111
	하	3.39	.67	120

학교계열(전문계/인문계)과 학교 적응유연성(상/하) 집

단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평균을 살펴보면, 인문계 학교 적응유연성 상집단의 자아존중감 평균이 3.74로 가장 높고, 전문계 학교 적응유연성 하집단의 자아존중감 평균이 3.25로 가장 낮았다.

[표 12] 학교계열과 학교적응유연성 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이원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MS (평균자승화)	F
학교계열	9.12	1	9.12	18.68**
학교적응유연성	6.33	1	6.33	12.97**
학교계열 & 학교적응유 연성 상/하	1.96	1	1.96	4.02*
	247.46	507	.49	
	6215.26	511		

\*\*p<.01, \*p<.05

학교계열(전문계/인문계) 집단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학교 적응유연성 수준(상/하) 집단에 따른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_{(1,507)}=18.68$ ,  $MS_e=.49$ ,  $p=.01$ ;  $F_{(1,507)}=12.97$ ,  $MS_e=.49$ ,  $p=.01$ ). 또한 학교계열과 학교 적응유연성 상/하에 따른 자아존중감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_{(1,507)}=4.02$ ,  $MS_e=.49$ ,  $p=.05$ ). 이 결과를 볼 때 인문계고 학교 적응유연성 상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고, 전문계고 학교 적응유연성 하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인문계고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전문계고 학생들보다 높고, 학교 적응유연성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응 유연성에 따라 인문계고 학생들이 전문계고 학생들보다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 적응유연성 수준과 학교계열에 따라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3은 지지되었다.

## 4. 종합논의

본 연구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학교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 적응유연한 청소년에게는 위기에 대처할 만한 보호요인이 더 많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외적인 어려움에 처한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학교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관계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어떤 변인이 학교 적응유연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학교계열과 학교 적응유연성 수준에 따라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봄으로써 학교 적응유연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역경을 이겨내고 학교생활에 더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특히 지금까지는 전문계 학생들에 대한 토대 연구가 너무 부족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인문계 자료를 참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를 위하여 서울, 경기 지역의 전문계 고등학생 573명과 인문계 고등학생 512명을 대상으로 8개의 위험요인 및 9개의 보호요인과 학교 적응유연성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응답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8개의 위험요인이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상관분석 결과, 전문계고와 인문계고 모두 위험요인 전체는 학교 적응유연성 전체와 유의미한 부적상관( $r=-.45, p<.01$ ; ( $r=-.43, p<.01$ )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위험요인들이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전문계고와 인문계고 모두 교사차별( $B=-.127, \beta=-.299, t=-7.450, p<.01$ ;  $B=-.144, \beta=-.351, t=-8.546, p<.01$ )이 학교 적응유연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언변인으로 나타났고, 전문계고의 경우 반사회성( $B=-.063, \beta=-.152, t=-3.944, p<.01$ )이, 인문계고의 경우 우울( $B=-.046, \beta=-.132, t=-3.428, p<.01$ )이 학교 적응유연성을 설명하는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는 차이를 보였다. 교사차별이 학교 적응유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선생님들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선생님이 자신을 다른 학생들보다 부정적으로 대한다고 인식하는 학생일수록 학교 적응유연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사실은 청소년과 선생님의 부정적 관계 및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위험요소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1]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인 학교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요인인 교사차별은 선행연구에서 개인내적 요인인 우울/포기성향이 가장 영향을 준다는 것과는 좀 상반된 결과이다. 만약 앞선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면 본 연구의 위험요인 중 개인 내적 요인인 우울성향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어야 했다. 이러한 이유는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상이성과 연구 대상 표집상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의문점을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전문계에서는 반사회성이, 인문계에서는 우울이 학교 적응유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중퇴경험 야간 실업계고 학생에게는 충동/공격 성향이 인문계고 학생에게는 우울/포기 성향이 가장 영향을 미친다는 [7]의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즉, 학교계열에 따라 집단의 내적 성격특성이 다르고, 이를 고려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9개의 보호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상관분석 결과, 전문계고와 인문계고 모두 보호요인 전체는 학교 적응유연성 전체와 유의미한 정적상관( $r=.41, p<.01$ ;  $r=.44, p<.01$ )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보호요인들이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계고는 교사의 지지, 민주적 학교 분위기, 책임감, 가족응집력, 자아존중감, 합리적 부양태도가 유의미한 예언변인이 되었고, 학교 적응유연성에 대한 전체 설명력( $R^2$ )은 34.1%였다. 인문계고는 교사의 지지, 민주적 학교 분위기, 책임감, 가족응집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언변인이 되었고, 학교 적응유연성에 대한 전체 설명력( $R^2$ )은 31.1%였다. 전문계고의 학교 적응유연성 하위변인에 대한 보호요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단계적 회귀분석에서는 (부록2 표-2), 학교흥미가 45%로 예언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규범준수 13.6%, 성취태도 11.4% 순이었다.

투입된 예언변인들 중 학교 적응유연성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전문계와 인문계 모두 교사의 지지이었으며 민주적 학교분위기, 책임감, 가족응집력의 순서로 학교 적응유연성을 설명하는 예언변인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지지[7]와 민주적 학교 분위기[3]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큰 설명력을 보였다는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사회환경적 보호요인인 교사의 지지와 민주적 학교분위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보호요인이며, 학생들이 교사가 자신을 인정하고 공정하게 대한다고 느낄 때 학교 적응유연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학생이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해 나가려면 학교 내에서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맺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여겨진다. 모든 학생이 교사와 학교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칭찬과 인정을 많이 하며, 긍정적인 수업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학교 적응유연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한편, 전문계고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친구의 지지가 학교 적응유연성과 정적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시설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학교 적응유연

성이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는 [8]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학교 적응유연성에 대하여 자아존중감과 친구의 지지가 정적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회귀분석 결과 전문계고 학생의 학교 적응유연성에 대하여 자아존중감이 부적 영향( $B=-.081$ ,  $\beta=-.147$ ,  $t=-3.852$ ,  $p<.01$ )을 미치는 것과 위험요인 중 비행유대가 부적 영향( $B=-.102$ ,  $\beta=-.255$ ,  $t=-6.351$ ,  $p<.01$ )을 미친다는 사실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또래 친구들과 사이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태도와 관련되는데, 전문계고 학생들은 친구 관계에서 비행 청소년과의 유대가 높고, 이런 친구들의 긍정적 평가 및 지지는 학교 적응유연성에 오히려 부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7]에 의하면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의리가 강하고 동조성이 높아 주변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어울리는 친구 집단의 성격에 따라 심한 부적응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적응적인 청소년들은 무조건 또래와 휩쓸리기 보다는 나름대로 같이 어울릴 또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책임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친구의 지지도 학교 적응유연성에 정적 상관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학교계열(전문계/인문계)과 학교 적응유연성(상/하) 수준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학교계열과 학교 적응유연성 수준에 따른 변량 분석에서 반사회성, 우울, 비행유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_{(1,504)}=8.39$ ,  $MSe=.768$ ,  $p=.01$ ;  $F_{(1,505)}=4.67$ ,  $MSe=.831$ ,  $p=.05$ ;  $F_{(1,506)}=6.11$ ,  $MSe=.69$ ,  $p=.05$ ;  $F_{(1,507)}=4.02$ ,  $MSe=.49$ ,  $p=.05$ ). 즉, 인문계고 학생들은 적응유연성에 따라 우울,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내적 정서적 요인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반하여 전문계고 학생들은 반사회성, 비행유대와 같은 사회적 영향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계고 학생들은 적응 실패에 따라서 그 좌절이 사회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반하여 인문계고 학생들은 자기 초점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반사회성 수준의 차이와 관련하여 전문계고에서 부적응적인 학생들의 일탈행동에 대한 개입 및 규범 준수에 대한 가치관 교육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낮은 학업 성취 및 중학교 생활의 부적응으로 인한 진학이 많은 전문계고 학생들이 사회적 규범 및 규칙을 준수하고, 남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울 때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잘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전문계고에서 적응적인 학생들의 반사회성이 인문계고의 적응적인 학생 집단보다 더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문계고 고등학생의 적응 집단과 부적응 집단 간의 특징

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비행유대 수준의 차이와 관련하여 학교계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전문계고 학생들이 일탈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과 더 많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며, 비행 청소년 및 학교 중퇴 청소년이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은 전문계고 학생들의 학교 적응유연성을 높이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자아존중감 수준의 차이와 관련하여 학교계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전문계고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인문계고 학생들에 비해 낮음을 의미하며, 이는 대학 진학 위주의 교육 제도 및 사회적 인식과 관련된다 고 할 수 있다. 전문계고 학생들의 강점을 찾아 자아존중감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 및 활성화를 통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울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입시위주의 교육 및 학벌위주의 사회적 구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대학 진학의 중간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인문계고에서 적응을 잘하는 학생의 경우 우울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지만, 인문계고에서 부적응할 경우 오히려 전문계고의 부적응적 학생들보다 더 심한 우울 수준을 경험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전문계고의 경우 직업교육이 우선시되어 학업성취에 대한 부담이 인문계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인문계고의 경우 성적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거시적으로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반영한 교육 및 직업 구조로의 변화가 요청되며, 생태학적으로 전문계고와 인문계고에 대한 차별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이러한 차별적인 개입에 따른 사후 효과 검증에 대한 후속 연구들을 통하여 수렴적인 결과를 얻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과 관련된 일반화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전문계와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한 표본이다. 따라서 지역분포가 적어서 전체 전문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의 상황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둘째, 가설개발의 근거로 제한된 수의 석, 박사 학위논문들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학위논문들은 다수의 기존연구들로 검증되지 않았기에 가설을 도출하는 근거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 적응유연성 척도[6]는 본래 빈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학교 학생에 대한 적응유연성을 평가

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 연구를 수정·보완하여 제작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전문계 고등학생 집단으로 연구대상이 확대되어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수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얻었지만 학교 적응유연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상황을 반영하는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하위차원들에서 중복되는 변인들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에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좀 더 다양한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교 적응유연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문계 고등학생의 위험요인 및 학교 부적응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드물고, 진로지도 및 학교 부적응의 실태 파악, 만족도, 교수방법 등 단순히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것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변인으로 연구를 확대하여 학교 적응유연성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을 줄이고, 보호요인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전문계 고등학생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마련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개인내적, 가족적, 사회환경적 위험 및 보호요인이 모두 학교 적응유연성에 정적, 부적으로 관계하며 그 영향력을 미쳤다. 현재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보급되고 있지만 일회성에 그쳐서 사후관리가 어렵거나 학교 실정에 맞지 않아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반사회성이나 우울을 개선하거나 책임감을 증진하는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업무나 수업시수가 많아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될까하는 의문을 가져볼 때, 이를 전문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상담 전문가의 양성 및 현장에서의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가정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각 교육청의 상담활동, 위기가정 지원 및 바우처 제도 등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을 지닌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각 지역별로 그 적용에 차이가 있고, 절차가 복잡하여 활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가족 내 문제 및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개입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전문계 고등학교의 민주적 분위기 조성 및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개선 및 증진이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교 적응유연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및 보호요인은 모두 사회환경적 요인이었다. 교사가 학생을 지지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의 분위기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고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조성되며, 건전한 또래 문화를 만들어 일탈 및 비행 행동을

줄일 때 학교 적응유연성이 신장되고, 성공적인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통해 학교의 민주적 문화 조성 및 교사와 학생의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가 재구성되고 계획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및 지원이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계열 구분의 간소화 및 전문계고의 감축,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전문계 고등학교를 육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마이스터고 제도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으로 기술 명장을 양성하기 위해 물질·제도적 지원을 하고, 직장과 병행하여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은 앞으로 계속 확대·지원되어 전문계 학생들이 더 적응을 잘하고 자부심을 지니며 학교생활을 하고 나아가 사회의 건강한 산업 인력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1] 권희순, “청소년의 위험요소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인신학대학교, 2007.
- [2] 김순규,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대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103-123, 2009.
- [3] 김해정,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2002.
- [4] 류은정,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가정환경 요인과 개인적 특성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백석대학교, 2007.
- [5] 박장환,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관련된 요인분석”,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1996.
- [6] 박현선,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1998.
- [7] 양국선, “중퇴경험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특성 연구”,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2001.
- [8] 여은선, “시설보호 청소년의 학교적응 향상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2005.
- [9] 이명숙, 이규민,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업성취, 자아개념, 학교적응 및 학교부적응행동 간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0(1), 167-193, 2009.
- [10] 오경자, 문경주,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 위험요소와 보호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59-76, 2006.
- [11] 하도선, “고등학생의 환경요인이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1998.

[1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9.

[13] Patterson, G. R., & Loeber, M. S., “The Correlation of Family Management Practices and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55, 1299-1307, 1984.

---

## 박 수 영(Suyoung Park)

[정회원]



- 2010년 8월 :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교육학 석사과정)
- 2011년 2월 : 시화공업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관심분야>  
상담심리

---

## 이 창 환(Chang Hwan Lee)

[정회원]



- 1993년 8월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사)
- 1999년 8월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심리학과 (철학박사)
- 2007년 9월 :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언어심리학, 인지심리학, 인지과학